

종축개량은 축산의 미래이다



조 병 대
한국종축개량협회장

종축개량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한·미 FTA 체결, EU, 중국 등과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국내시장은 보호막 없이 완전히 개방되기 시작하였으며 축산산업도 예외 없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원유 가격의 인상에 따른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며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기약 없이 인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질병의

발생,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많은 농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실의와 불안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축산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한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산업으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산업이다.

도전은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도전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없듯이 우리 축산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차별화된 고품질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생산비를 낮추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축산미래에 대한 도전은 종축개량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했을 때 더욱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종축개량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한국축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볼 수 있다.

10월은 개량의 결실을 보는 계절이다

10월은 농민들이 곡식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개량 농가에게는 소비자와 함께 종축개량 결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축제 즉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와 한국홀스타인품평회 등이 열리는 계절이기도하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세계 최고의 쇠고기 한우!”라는 슬로건을 걸고 10월 21일부터 출하·경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전국 148농가 및 브랜드에서 혈통등록된 거세우 296두가 출품된 이번 대회는 혈통과 능력에 의한 고급육 생산을 통하여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비자와 연계한 한우고기 “브랜드”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더불어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와 연계하여 aT센터에서 전시회 및 시식회를 갖는다.

또한 16회째를 맞이한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개량은 미래의 약속! 개량의 결실은 품평회로!”라는 주제 하에 15개부 215두가 출품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출품자와 출품우간의 호흡을 맞추는 「리딩 콘테스트」라는 부문을 신설하여 초등학교 ~ 고등학교까지의 목장후계자들을 대상으로 출품축 인도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출품축 자격도 조·부모대 이상의 혈통을 가진 혈통등록우로 상향하여 대회의 참가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다양한 축산제품을 접할 수 있는 축산기자재 전시회와 우유소비홍보 등의 행사도 열린다.

축산농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축협, 가축개량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축산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19세기 중반 사진의 출현으로 많은 화가들이 회화의 종말을 예언하였으나 오늘날 회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진이 예술성의 가미로 회화를 모방하고 있다. 이 뜻은 지금의 축산은 개방화에 따른 외국 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사육농가 및 두수가 감소하는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





아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제품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소비자 브랜드파워 1위를 유지하면서 2007년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황성한우의 경우 강원도 작은 군에서 “세계 최고 한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인 개량과 마케팅을 끈기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이루어낸 성공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생산에만 치중된 축산영역을 확장·다변화하여 유통과 마케팅을 포함시키고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한다면 축산은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산체험관광목장을 운영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하여 판매하는 유통분야를 강화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종축개량에 더욱 매진하겠다

본회는 1969년 창립되어 가축의 우량한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형질을 개량하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여 축산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 지가 어느새 38년 불혹의 나이가 다되었다. 그동안 혈통등록, 외모심사, 검정, 교육사업, 품평회 등을 개최하면서 가축개량사업을 선도해 왔다. 더불어 축산물등급관정사업의 기틀을 만드는 등 한국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농가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국가간 무역장벽이 없어지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우수한 유전자원을 조속히 확보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이에 본회에서는 정확한 개량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개량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가축품평회 활성화를 통한 개량도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선진축산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축산농가가 우수한 유전자원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종축개량업무를 더욱 충실이 시행해 나아가겠다.